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내일 기관별 채용정보 안내·인재 취업 성공사례 발표 모의면접 시연·오픈캠퍼스 소개 등 채용상담 부스 운영

전북도는 12일 오후 2시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2018년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의 주관으로도 내 대학생과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설명하는 행사로,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인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2개소

(전북은행,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 소재 6개 지역대학 및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오픈캠퍼스와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정보 안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소개하고 공공기관 선배 취업자의 성공사례 발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취업노하우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관별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취업상담과 학생

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면접 시연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다양한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부터 지역인재채용목표 18%부터 시작해 매년 3%이상 확대하여 2022년까지 30%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한편,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6곳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공단 88명, 한국전기인전공사 178명, 한국국토정보공사 300명 등 5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후 2022년까지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30%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인재들이 이전 공공기관에서 버리는 희망인재상과 면접 중점사항 등 채용정보를 얻어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성기자

임종석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 평양 남북회담 초청”

“남북 역사 새 장 열리는 시기 대승적 동행 요청” 靑, 한병도 수석이 초청 뜻 전달... “받아주길 기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정상회담에 동행할 국회 정당대표 9명을 선정하고 초청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 방북단 규모는 200명가량으로 확정하고 인적 구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평양 정상회담에 문화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정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상 9명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꼭 함께 해주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현실에서 얼마간의 정치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 의정단 5당 대표가 대승적으로 동행해주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초청에 응해주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이 의미 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 있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의 노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초청에 응해주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이 의미 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 있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의 노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종로로 한병도 정부수석을 통해 국회에 초청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 정당대표단이 이번 동행에 수락해주시면 제나 안보실장이 찾아뵙고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별 수행원에 경제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인들도 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는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점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며 “손학규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 강조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평화 가치는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지 않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는 각

이어서 “이 초청에 응해주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이 의미 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 있게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에서도 이 흐름에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저희의 노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종로로 한병도 정부수석을 통해 국회에 초청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 정당대표단이 이번 동행에 수락해주시면 제나 안보실장이 찾아뵙고 전반적인 준비과정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별 수행원에 경제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인들도 꼭 협력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해찬·정동영·이정미 대표는 남북화해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한 점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며 “손학규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협력 강조해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도 발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도 과거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평화 가치는 거부할 수 없다’,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지 않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보는 각

전북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강화

도내 수출분야 산·관 전문가들 참여 '전북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북도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지난 해 5월 구성되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수출 진흥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통상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장과 관련 전문가, 기업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도내 수출관련 전문가와 기업대표를 포함하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한미 FTA 재협상 등 최근 무역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실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최근 무역동향 및 글로벌 통상환경'이라는 주제로 도내 수출여건을 분석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세창스틸 김희봉 이사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수입 물량 제한)로 인해 대미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제통상진흥원 상주관에서의 컨설팅으로 수출을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표했다.

(수천하 강병권 이사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어려움과 그 동안 유럽, 동남아, 중남미 무역사절단 참여를 통한 터키시장 진출과정을 발표했다.

전북도는 2012년 이후 급감한 도내 수출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으나, 한

국GM 군산공장 가동중단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협의회를 통해 다시금 수출상황과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수출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자원이 빈약하고 산업에서 낙후되어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 도는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수출지원협의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 수출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메르세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또다시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대책 및 방역에 비상이 걸린 10일 전북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관계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실퍼보며 출입자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게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이용자들의 불편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쯤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보상수당 지급, 별도의 휴게공간 마련 등이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